



## 여덟번째 이야기

# 주님의 일에 온 가족을 부르시다

[ 선교지 선교사역 ① 가나 ]

사랑하는 예지와 예성에게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해 학교 수업이 중단되어, 1년 이상 집 밖을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지와 예성이 온라인 수업을 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그런 상황을 불평 없이 잘 견디고, 무엇보다 예성이는 컴퓨터를 스스로 켜고 온라인 수업을 척척 따라가는 모습에 엄마 아빠는 무척 감동한다.



우리 가정이 2009년 온누리 교회와 BEE Korea의 파송을 받아 가나에 왔을 때, 예지는 2살에 불과했고 예성이는 엄마의 태중에 있었지. 지난 12년 선교지의 삶을 돌아보면 아빠는 여러모로 준비되지 못한 채 선교지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곳곳에 예비하셔서, 그들과 동역하며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예지와 예성이 가나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불평 없이 적응한 것이 아빠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지.

가나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온 가족이 돌아가며 말라리아를 겪은 거야. 특히 예지와 예성이는 어려서 말라리아를 참 많이 앓았잖아. 온몸이 불같이 달아올라 고열에 시달리다 지쳐서 잠자리에 드는 너희를 바라보며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곤 했단다. 말라리아 약을 보기만 해도 울고, 먹으면 토해서 역지로 다시 먹이던 일이 미안함으로 남아있지만, 기도 동역자들의 격려와 신실한 증보기도로 이겨낼 수 있었다. 이제 너희도 제법 성장해서 고열이 나면 자가진단해서 약을 처방할 정도로 말라리아 전문가가 되었지.



어느덧 예지는 중학교 2학년, 예성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구나. 예지는 숙녀로 성장해가고, 예성이는 변성기가 시작된 것 같구나. 감사한 것은 이름대로 예지는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예성이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거란다. 예지는 그림을 배운 적이 없지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예지 그림이 2021년 BEE Korea 달력에 실린 것은 가문의 영광이란다.

예성이는 컴퓨터 수업을 좋아하고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루어서 엄마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척척 가르쳐 주는 것도 기특하단다.

아빠는 예지와 예성이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선교사로 헌신했고 자녀는 단지 부모를 따라온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빠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에 온 가족을 부르셨다고 믿는다. 너희는 가나에 사는 한, 한국과 가나의 문화를 함께 품고 살아가는 MK 선교사란다. 아빠는 선교지에서의 자녀 교육이 선교사역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를 먼 곳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선교사님들 가운데 사역을 잘 이루었지만, 자녀가 성장해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알고 있단다. 물론 그것이 부모의 잘못만은 아니겠지만,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세상의 도전에 대응할 예방주사를 맞혀 준비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너희 학교에 힌두교와 이슬람 신자가 있어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토론할 수 있으니 좋은 신앙교육 현장이 아닐 수 없단다. 아빠는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신앙의 길을 찾아가도록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아빠는 형식과 시간에 매이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궁금한 것을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단다. 종종 예성이의 툭툭 튀는 답변은 온 가족에게 폭소를 선사하곤 하지.

또한, 작년 초부터 매일 저녁 CGNTV를 통해 공동체 성경읽기를 하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문에 삽화가 곁들여져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였지. 올해 두 번째 성경 읽기를 하는데 예지가 학업을 위해 우리 곁을 떠날 때까지 성경 읽기를 계속하면, 성경을 다섯 번은 통독할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앞으로 우리 예지는 마음에 드는 화학 선생님을 만나 화학에 흥미를 느껴 화학자가 되고 싶고, 예성이도 과학을 좋아해서 아빠를 따라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어하지? 하나님께서 너희 남매를 아프리카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장차 어떻게 쓰실지

궁금해. 무슨 일이든지 너희가 좋아하는 것을 즐겁게 하기 원하지만 믿음만은 최고이길 바란다. 너희가 잠자리에 들 때, 곁에 누워 하나님께서 예지와 예성이를 지혜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아빠의 중요한 그리고 행복한 임무란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예지와 예성이가 아프리카의 척박한 환경에서 성장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지금의 경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글쓴이 김용달 선교사]



2009년 아내 강혜경 선교사와 함께 BEE Korea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가나에서 12년째 사역 중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Youtube 채널 ‘김용달tv’를 통해 선교지의 모습을 전하는 크리에이터이기도 하다.

[정리: 이경주, 편집: 최선]



선교지  SRI LANKA



[전통축제-캔디 불치사의 페라헤라 축제]

약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축제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축제이자 세계 3대 불교 축제 중 하나로, 부처의 치아 사리가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흘러 들어온 것을 기념한다. 매년 음력 7월 1일부터 11일간 부처의 치아 사리를 보관하고 있는 캔디 불치사에서 진행된다. 싱할라족 언어로 ‘행진’을 의미하는 ‘페라헤라’는 실제로 열 하루의 축제 기간 내내 화려하게 치장한 무용수와 곡예사, 수십 마리의 코끼리가 스리랑카 전통 음악에 맞춰 행진을 펼친다.

---

BEE 소식

---

1. 2021년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이웃과도 그 친밀함을 나누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2. 매일 아침 8시에 시작되는 BEE 사역 중보기도가 '5분 띠기도'로 진행됩니다. 중보의 띠가 되어 함께해요.
3. 4월 24일(토) 6:30, 서빙고 비전홀! ‘대면 BEE 기도회’와 실시간 유튜브 방송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함께 기도해요!

